

감출 수 없는 매국노들의 정체

최근 남조선에서 문창국에 대한 총리후보자지명을 놓고 각계층의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문창국은 이러저러한 기회들에 우리나라에 대한 일체의 식민지 지배와 일제의 패망후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의 분열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며 정당화하고 일본군의 성노예문제를 사과받을 필요가 없다고 수작질을 해왔는가 하면 조선민족의 상징은 《게으른것》이며 자립성이 부족하고 남한에 신세지는것이라고 허바닥이 돌아가는데로 마구 주절거렸다. 결국 국전에 사무친 40여년간의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가 《응당》하고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근 70년을 헤아리는 민족분열의 고통이 《당연》하며 조선민족

은 다른 민족의 지배속에 사는것이 《필연》적이라는 소리이다. 일고의 혼할 가치도 없는 인간쓰레기의 미친소리라 하겠다. 아마도 자기 민족을 무참히 모독하고 스스로 짓밟는 문창국과 같은 친일매국노, 민족반역의 불망나나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하기에 만사람을 경악케 하는 망언들을 해낸 문창국을 놓고 과거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한 남녘인민들과 온 겨레는 물론 주변나라들에서 까지 제2의 리완용, 회세의 매국노로 단죄규탄하고있으며 사망에서 총리후보자지명 철회와 후보자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문창국 총리후보자지명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부정하는 사대와 매국, 동족 대결에 찢은 저런 미물같은 것이 총리후보는 고사하고 어찌 이 땅에서 살아숨쉬실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놀랄게도 온 남녘땅이 총리후보로 지명된 문창국의 사대매국적 정체를 두고 분노로 끓여버린 지고있는 오늘 유독 《새누리당》 패거리들만은 쓸개빠진 녀드리를 늘어놓은 인간 추물을 극구 비호두둔해나서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새누리당》내에서는 《그는 친일이 아니라 국일이고 나라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풀수없는 나발이 울려나오는가 하면 《앞으로 반성하고 좋게 가자는 뜻이 아니였을가. 악의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하며 문창국을 옹호하는 껌변들이 계속 울려나왔다. 그런가하면 《새누리당》은 문창국의 망언을 단죄하고 지명철회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지자 이를 억누르고 입을 막기 위한 유치한 놀음에까지 매달리고있다. 하다면 명색이 집권여당이라는 《새누리당》이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 인간추물과 같은 문창국을 무력대고 편력들고 비호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하는것이다.

친일반역자를 내세운 남조선당국을 비난

을 보며 벼속까지 친미, 친일, 배족적인 그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남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본인이 벼속까지 친미, 친일이다보니 《국무총리》로 내정한 사람조차 친일분자이다. 일본이 조선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잊

었다 말인가? 박근혜가 추천한 문창국이 언론인이름으로 글을 썼자같은 발언한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일본이 손뼉을 칠 그리고 일본의 대변인으로 착각할 내용이다. 그의 글이나 발언내용들은 그가 조선사람인지 아니면 일본사람인지 의심을 하

《새누리당》은 비록 간판은 여러번 바뀌었지만 력대로 그 뿌리는 친일친미매국에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돈과 권력이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것이 《새누리당》일진대 미물이든 추물이든 속통이 같은데야 마다할 이유가 없는것이다. 또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 총리후보자를 놓고 립장이 여간 딱하지 않게 되었지만 밋든 굶든 살리지 않으면 안되는 말 못할 안락가운 속사정도 따로 있는것이다. 박근혜의 《불통인사》, 《수첩인사》로 당치않은 자리에 올라앉은 멍렁구리같은 현 총리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들쓰고 박근혜의 제물로 바쳐졌지, 힘들게 물색한 지난번 총리후보자는 각계의 비난에 시달리다 못해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할수 없이 자진사퇴했지, 다시 겨우 하나 내세웠다는게 과거에 천하 역적짓만 골라한 미물같은 존재라 발길로 차버리고싶을데지만 그렇게 되면 그 후과가 참으로 압담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까지도 편이여 총리후보자 락마사태가 빚어질 경우 《정부》와 여당의 《몹쓸》을 떨어뜨리는것은 물론 한달 남짓하게 남은

보충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심하다고 우는 소리를 제쳤겠는가. 박근혜의 체면도 봐줄래, 눈앞에 닥친 보충선거도 치물래 미물인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더없는 총리감》이라고 비호두둔할수 밖에 없는것이 친위량난에 빠진 《새누리당》의 처지이다. 더우기 기가 막힌것은 남조선의 각계각층이 《일제의 식민지지배가 신의 뜻이라면 문창국사퇴는 국민의 뜻!》, 《박근혜는 민족반역자 문창국을 해 그렇게 좋아하는가?》고 분노를 터뜨리는데 통치처참을 해도 서원치 않을 문창국과 같은 민족반역자를 총리후보로 지명한 남조선당국자는 지명철회나 사과하는커녕 입술을 뺏 씻고 해외나들이에 나선것이다. 파시 《유신》의 피를 물려받고 사대매국이 유전된 박근혜만이 할수 있는 뻔뻔스럽고 간특한 처사를 하겠다. 이러한 사실들은 문창국과 같은 인간추물따위를 총리후보로 지명한 박근혜나 민심의 분노로부터 《문창국 구하기》에 열중하는 《새누리당》 패거리들이나 다 같이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로 숨쉬고 잔명을 부지하며 민심에 는 판개없이 친일친미파쑈독재에만 매여달리는 민족의 오물단지, 매국노집단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서 희

근해가 어떻게 《국무총리》로 추천했는지 참으로 억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규탄하였다. 박근혜 역시 미치지 않고서는 이자를 추천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문창국이 절대로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되는 리유는 그가 일본사람보다 더한 일본인이기때문이라고 글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특등매국노에게 가장 엄한 극형을

남조선에서 총리후보로 내정된 문창국이라는자가 우리 나라의 분렬이 《하느님의 뜻》이었다는 개수작을 제쳤다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그자에게는 근 70년에 달하는 민족 분렬로 하여 당하는 우리 겨레의 불행과 고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그자의 혈관속에 흐르는 피는 도대체 어느 민족의 피란 말인가. 문창국이 지난 기간 말말마다 《하느님의 뜻》을 걸고들며 미국이 일으킨 전쟁까지도 《하느님이 미국을 붙잡기 위해 주신것이다.》고 망발했다니 그의 팔수에 무엇이 짝 들어차있는

지 보지 않고도 뻔하다. 이런 특등사대매국노, 친미대결광신자가 《총리》자리에 올라앉으면 가족이나 파국상태에 빠진 북남관계가 더욱더 악화되고 남조선인민들이 더 큰 재난을 겪게 될것은 불보듯 뻔하다. 분렬로 인한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끝장내기는커녕 외세를 《하느님》으로 떠받들면서 겨레의 머리우에 더 큰 재앙을 몰아오려는 문창국놈은 총리후보사퇴가 아니라 민족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려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평양시 서성구역인민위원회

교장 김진철

친일매국노를 일본땅에 내버리라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의 총리후보로 나선 문창국이라는놈이 감히 우리 조선민족을 두고 《게으르고 자립성이 부족하며 남한에 신세지기 좋아하는 민족》이니 뭐니 하다 못해 일제의 식민지지배와 국도분렬도 《하느님의 뜻》이라고 반민족적 망발을 늘어놓았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망언중에 이런 망언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국도의 민족배타주의에 사로잡혀 인류를 불바다속에 던지라고 고향을 지

르던 히틀러도, 아시아를 피바다에 잠그고 희열을 느끼던 도쥬도 제 나라, 제 민족에 대해서만은 감히 이런 식의 망발을 늘어놓지 못하였다. 문창국놈의 몸통이에는 분명 조선사람의 피가 아니라 일본사투라이의 피가 흐르고있을것이다. 조선민족을 미개하다 욕질하며 일본의 지배를 《하느님의 뜻》으로 찬미한 특등친일매국노 문창국놈을 당장 들어내어 일본땅에 내동댕이쳐야 한다. 김만유병원 의사 김현철

개보다도 못한 인간추물

나라없는 백성의 신세는 상가집게만도 못하다고 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40여년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말그대로 상가집게신세만도 못한 노예의 처절한 40여년이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해온 우리 민족이 미개해서 일본에게 지배당했는가. 일본이 심신을 베풀어서 《합병》의 족쇄를 채웠던가. 일본은 철두철미 총칼과 대포를 휘둘러 우리에게서 나라를 빼앗았었다. 그런데 뭐 《하느님의 뜻》이라고, 일본으로부터 《위안부문제를 사과받을 필요가 없다.》고?!

통은 아직도 우리 민족모두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그런데 뭐 《하느님의 뜻》이라고, 일본으로부터 《위안부문제를 사과받을 필요가 없다.》고?!

나라없는 백성의 신세는 상가집게만도 못하다고 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40여년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말그대로 상가집게신세만도 못한 노예의 처절한 40여년이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해온 우리 민족이 미개해서 일본에게 지배당했는가. 일본이 심신을 베풀어서 《합병》의 족쇄를 채웠던가. 일본은 철두철미 총칼과 대포를 휘둘러 우리에게서 나라를 빼앗았었다. 그

로 감행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 《THAAD》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미국 《미싸일방위체계》에 적극 가담하려 함으로써 외세의 장단에 발을 맞추는 특등전쟁하수인, 핵전쟁공범자로서의 전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들은 6.25전쟁의 도발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며 오늘날도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미처날뛰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야말로 침략자, 평화의 파괴자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내외호전세력들이 또다시 6.25의 망령을 되살리려 한다면 그것은 설치고 불속에 뛰어드는 어리석고 무모한것이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세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군력에 의해 지난 시기와는 대비할수 없는 치창한 참예를 면치 못할것이다. 김광억

전쟁도발자, 평화파괴자는 미국

다. 남조선군을 전쟁의 대포뿔망으로 써먹기 위한 군사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10억US\$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원조와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남조선군에 제공하고 38° 선일대에서 무장도발행위들을 끊임없이 감행하도록 하였다. 여러해에 걸쳐 국비밀리에 《북벌》계획을 작성한 미국은 1950년 6월 전쟁상인 덜레스를 남조선에 파견하여 북침전쟁을 위한 최종결정을 진행하였다. 후에 알려진것처럼 당시 덜레스는 《나는 이번에 북진준비상대를 직접 보고 준비에서 부족점이 없다면 곧 북진을 단행하라는 트루먼대통령의 명령을 가지고왔다. 와서 보니 준비는 만족하다. ...준비가 된 이상 북진을 하루도 늦출 필요가 없다.》고 떠벌이었다. 상전의 부추김과 전쟁도발지령에 따라 리승만 《정권》은 1950년 6월 25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이렇게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유엔의 간판밑에 15개 추종국가군대까지 조선전쟁에 끌어들여 야만적이고 무차별적인 살륙과 파괴, 약탈행위들을 꺼리낌없이 저질렀다. 이렇듯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유엔의 간판밑에 15개 추종국가군대까지 조선전쟁에 끌어들여 야만적이고 무차별적인 살륙과 파괴, 약탈행위들을 꺼리낌없이 저질렀다. 미국은 조선전쟁현정에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남조선에 1 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을 끌어들여 국동 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년대를 이어가며 《푸에블로》 호사건, 《EC-121》 대형간첩비행기사건, 관문점사건, 《팀 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 반공화국핵소동과 같은 무분별한 군사적

다. 국도의 인간중요사상으로 길들여진 미군은 가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우리 겨레에 대한 대학살과 파괴 및 약탈행위를 감행하였다. 지어 미국은 국제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세균무기와 생화학탄까지 동원하고 전체 조선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한 원자탄 사용을 검토하는 특대형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 실로 3년간에 걸친 조선전쟁에서 감행된 침략자들의 죄악은 그 규모와 지속성, 악랄성과 파렴치성에 있어서 인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무도하고 전무후무한 죄악이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조선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때로부터 한국의 전지역에 대한 공중타격을 노린 《맥스 썬더》라는 연합공중훈련도 로골적으

도발과 핵전쟁책동을 미친듯이 벌려왔다. 오늘날 미국의 북침핵전쟁소동은 남조선에 친미보수집단인 박근혜 《정권》이 등장한것을 기회로 하여 더욱더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식이 팔수에 찬 박근혜 《정권》은 《한미동맹》을 부르짖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편승하여 대결과 전쟁도발책동에 미친듯이 매달리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방대한 미국의 핵전쟁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 2월 24일부터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3월 말과 4월에 들어와서는 《평양정령》을 목표로 한 대규모의 연합사육훈련과 공화국의 전지역에 대한 공중타격을 노린 《맥스 썬더》라는 연합공중훈련도 로골적으

시 는 을 감겨주마!

— 《세월》호 실종자어머니들의 분노—

김 송 립

제명을 다 못살고 먼저 떠나간것이 그리도 아프게 못으로 박혔는가 애러린 꽃망울 채 피기도 전에 영영 가버린 사랑하는 아이들이 너희들 잃은 어머니 가슴 분통이 터지고 피가 끓어오른다

장난이 하도 세차 스스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던들 이다지도 가슴이 찢기지는 않으리라 조금만 빨리 구조를 벌였어도 얼마든지 모두 살렸을 우리 아이들이!

모질은 이 땅에서 이를 악물고 애지중지 너희들 키웠건만 어이하여 눈도 감지 못한채 싸늘한 시신되어 돌아왔느냐 아,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터진다!

손끝이 모지라지도록 선창을 허비며 애타게 구원을 소리쳐 부를 때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 그 어떤 재난구조도 문제없다던 구조선, 구조비행기는 모두 어디로 갔느냐

울분으로 항거하는 가족들들

《불온분자》로 몰아 탄압하는게 민중을 위하는 《정부》인가 수백명의 아이들 바다속에 처넣고 눈섭 하나 떨지 않은 《대통령》의 몸에도 과연 인간의 피가 흐른단 말인가 오, 저주여! 너 애러린 영령들의 원한을 터쳐 청와대의 지붕우에 날벼락으로 쏘리라 분노여! 너 어머니들의 피눈물 격랑으로 일으켜 《박근혜》호를 삼켜버리라

사랑하는 아이들이아 우리 결코 눈물만 흘리지 않으리라 가만히 있으면 또 언젠가는 이 어머니들도 너의 동생들도 온 남녘땅이 저 《세월》호처럼 수장되겠기에

기다려라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아 무정한 이 사회 들어내치고 우리 겨레 함께 사는 복된 세상에서 피맺힌 한이 풀리는 그날 너희들 혼을 불러 잠재워주마! 감지 못한 두눈 같이 감겨주마!

이후 서해지역은 긴장격화를 노린 련이 북침전쟁도발소동으로 인해 다치면 터질듯 한 위기국면에 놓여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비롯한 조선서해 5개 섬 일대에서 총포를 쏘아대고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북침전쟁의 서막을 열려는가

배라들을 살포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정상적인 경계군무수행중에 있던 조선 인민군해군함선들과 평화적인 중국어선들에 무차별적인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들을 감행하였다. 하여 오늘 이 지역은 항시적인 총출의 온상지역으로, 최대의 위험지역으로 되고있다. 이처럼 군사적긴장이 최대로 높은 열점지대에 방대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것은 더 많은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여 임의의 시각에 군사적도발을 감행하려

는 홍심의 발로이다. 이것이 제2의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엄중한 도발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남조선군부세력이 《서북도서》는 북의 목을 노리는 비수와 같은 전략적요충지》라고 떠들며 백령도를 서해 5개 섬 일대에 북침선제타격을 노린 대항유도무기, 지대공미사일, 신형대포병에다, 《스파이크》형 미사일 등을 비롯한 공격기술폭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하고있는것도 마찬가지이다. 사실들은 남조선군부세력이 북침전쟁의 서막을 바로 서해지역에서부터 열려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불을 좋아하는 부나비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만일 남조선호전세력이 끝끝내 무모한 군사적도발에 매달린다면 서해는 곧 도발자들의 최후무덤으로 될것이다. 김철호



북침전쟁연습에 미처날뛰는 미군과 남조선괴뢰군

